

# 공원·박물관·수목원등서 특별한 웨딩... 예식준비 원스톱 맞춤 컨설팅



수원박물관에서 특별한 야외 예식이 가능한 공공예식장 수원새빛뜰-박물관 무대.



수원전통문화관 안마당을 활용한 수원새빛뜰-행궁에서 전통혼례가 진행되고 있다.

광고박물관, 일월수목원, 전통문화관 3곳 추가 운영  
전문 웨딩업체와 업무협약... 실속형 표준가격 적용  
'연애의 발견' 청춘남녀 만남행사... 자유로운 산책도

경기 수원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은호씨(29)는 오는 11월 초 수원광고박물관 앞 광고역사공원에서 조금은 특별한 야외 예식을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김씨 커플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식은 생략하고 가족들끼리 식사로 대신해 예식비를 아끼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수원에 공공예식장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합리적인 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확인한 뒤 이들은 일사천리로 계약을 했다. 예비 부부가 선택한 공공예식장의 이름은 '수원새빛뜰-광고'다. 김씨는 "수원의 공공예식장 덕분에 저렴한 예식비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하고 매력적인 공공예식장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있어 수원새빛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결혼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을 더해 결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처럼 둘러져 도심의 번잡함이 사라진다. 한가운데는 370년이 넘는 느티나무 보호수가 중심을 잡고 있어 그림 같은 자연 속에서 사람의 서약을 맺을 수 있다. 2시간 동안 이용할 때 3만원으로 대관료 부담이 거의 없다. 100~200명이 모일 수 있고, 주차는 유료지만 135원으로 저렴하다.

'수원새빛뜰-박물관'은 수원박물관 야외무대를 신랑과 신부를 위한 무대로 꾸며주는 예식실이다. 박물관으로 들어가기는 한졌지만 걸 한켠 깊숙한 곳에 마련된 공간은 작지만 소담스럽다. 반원형으로 무대를 둘러싼 극장식 계단이 신랑신부를 주인공으로 돋보이게 해준다. 잘 자란 나무를 배경 삼은 무대에 꽃장식까지 더해지면 주름 잔디밭과 어우러져 화사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더해진다. 단 3만원이면 8시간 동안 온전히 우리만의 예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0~200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고, 주차장 이용도 무료다.

'수원새빛뜰-수목원'은 장안구에 위치한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를 활용하는 공공예식장 방문자센터다. 풍요롭고 시원한 야외 풍경이 액자처럼 펼쳐지는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는 밝고 개방된 공간감이 일품이다. 수원시의 공식 행사가 자주 열리는 인기 장소다. 이외가 아닌 실내에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예식장으로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편리하다. 1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2시간에 15만원의 대관료가 발생한다. 다관식물원이 휴관하는 월요일에만 대관할 수 있다. 평일 예식이 가능한 커플만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수원새빛뜰-행궁'은 전통 혼례를



위 지난 4월 수원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수원시와 웨딩 컨설팅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지난해 연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연애의 발견 행사가 참여한 이재준 시장이 참가자들에게 격려 인사를 하고 있다. 아래 지난 19일 수원 영호수목원에서 진행된 연애의 발견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치들 수 있어 특별한 공공예식장이다. 화성행궁 근처에 있는 수원전통문화관 안마당에서 전통혼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80명 이내의 소규모로 진행하며 피로된 장소도 인근 식당인 미와 방식을 추구하는 커플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관료는 없다.

● 부담스러운 예식 비용은 '다문, 행복은 업'  
박물관, 공원, 수목원 등 특별한 결혼식 장소들은 모두 수원의 공공기관을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과 예식 준비의 간소화를 위해 수원시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기존에는 수원박물관 한 곳만 예식장으로 대관했는데, 수원시가 활용 가능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올해 5월부터 4곳으로 늘었다.

공공예식장 이용 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차별화된 장소에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해진 틀과 순서에 따라 찍어내듯 진행되는 일반 예식장과 달리 수원새빛뜰에서는 오로지 단 한 커플만을 위한 예식이 이뤄진다.

또 식순이나 구성 등을 모두 예식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 완벽한 우리만의 결혼식을 만들 수 있다.

수원새빛뜰을 이용하면 복잡한 예식 준비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장소를 대관해주고 나머지 절차는 모두 개

별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대폭 개선해 전문업체가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전문 협력업체 2곳을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서연 수원새빛뜰 이용자들은 웨딩 컨설팅 경험이 많은 업체들과 인프리를 활용해 복잡한 절차를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공공예식장은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저렴한 대관료뿐 아니라 수원 공공예식 표준 가격이 공개돼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표준가격표에 기획과 진행비는 물론 야외 특수음향, 의자 등 비용을 실속형과 기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꽃 장식(생화, 조화), 피로연(도사락, 케이팅) 등 선택사항도 표준 가격을 공개해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준다. 스텐드(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민약 실속형으로 진행할 경우 200명 하객 기준으로 1300만원의 비용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소비지원 참가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원 1주 일반 예식장의 평균 비용이 2019년~2379만원(200명 기준)임을 감안하면 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원시 공공예식장을 예약하려면 일정과 원하는 장소를 확인한 뒤 새빛뜰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협력업체와 종합 상담을 한 뒤 대관을 신청하면 예식이 확정된다.

● '결혼? 예식?' 공공 주도 교류로 인식 환기  
결혼식장 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이어지는 청춘남녀의 만남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벤트도 결혼 문화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을 근거로 청춘남녀를 서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교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단순하게 커플 매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연애나 결혼을 시작하고 느끼는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환기할 수 있도록 공공 교류를 강화하는 노력이다.

지난 19일 수원 영호수목원에서 진행된 '연애의 발견'이 대표적이다.

용기를 내 참여한 25~34세 미혼 남녀 30명의 첫 분위기는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간단한 게임으로 시작해 유사한 품을 캐릭터로 자신을 소개하고, 사정검사를 기반으로 성격 유형별 조별활동 등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참가자간에 친화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이후 수목원을 자유롭게 산책하는 시간이 되어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교류했다.

한 참가자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아이기를 나눠보면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첫 번째 행사에서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79%에 달했다.

또 하반기에는 속삭임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영호민 기자 lim@siminilbo.co.kr

